242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17. 12. 26



#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18년 주요 경제 이슈

김범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42

2017. 12. 26

##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18년 주요 경제 이슈

	요약	3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II.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III.	시민 관심 경제 이슈: 2018년 주요 경제 이슈	19
	부록: 2017년 4/4부기 주요 조사결과	22

김범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76 kbs@si.re.kr

#### 제조업 생산은 큰 폭으로 하락, 서울경제에서 비중이 큰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 지속

서울경제에서 90% 내외에 달하는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017년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해 전국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10월에 전년 동월보다 0.7% 증가했다. 반면 10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3% 하락했다. 10월 중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0.5% 하락한 513만 1천 명이며, 「청년층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보다 2.0% 감소한 86만 4천 명에 그쳤다.

####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3분기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미래 기대감은 약화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4/4분기 103.3으로 전 분기 대비 1.0p 상승하였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2.1p 상승한 88.2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0.4p 하락한 97.9를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4.0으로 전 분기 대비 0.2p 하락하고, 「미래경기판단지수」도 전 분기보다 2.4p 하락한 94.0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소비지출지수」와「미래소비지출지수」도 각각전 분기 대비 2.9p, 0.7p 하락한 112.0, 101.0을 기록했다.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2.7p 상승한 94.4를 기록했고, 「주택 구입태도지수」도 3.3p 오른 70.8을 기록했다. 「순자산지수」와「물가예상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고용상황전망지수」는 하락하여 전 분기보다 고용 창출 기대감이 약화되고, 물가 불안감은 다소 높아졌다.

#### 2018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순위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내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위는 1~3순위 합계 기준으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46.4%)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은 '생활 관련 물가상승'(32.6%), '부동산 경기'(31.2%), '최저임금 인상'(25.8%), '가계부채 증가'(24.7%), '저출산/고령화 문제'(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울시민은 대다수 경제 이슈가 내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였다.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 경제 이슈는 '중국과의 관계'이고, 그다음은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 정책', '신성장동력 발굴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민들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소득 양극화', '자녀 사교육비' 등은 개선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인식하였다.

### 1.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 제조업생산은 크게 하락했지만 서비스업생산은 증가

2017년 3/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 증가

- o 서울경제에서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서비스업은 전국보다 높은 생산 증가세 지속
- 3/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20.1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
- 숙박·음식점업(-2.8%), 교육 서비스업(-2.3%) 등은 감소하였지만, 부동산·임대업 (14.0%), 보건·사회복지업(10.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6.6%),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6.0%) 등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
- 3/4분기 전국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9.4로 전년 동기보다 3.2% 증가
- ㅇ 반면 2017년 10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3% 하락
- 10월 중 서울의「제조업생산지수」는 99.5로 전년 동기보다 17.3% 하락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6.6%)
- 전국의「제조업생산지수」도 최근 2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10월에는 -6.2%로 다시하락세로 전환(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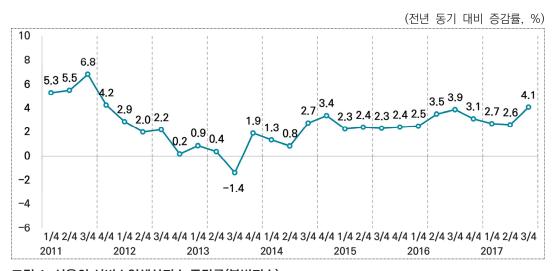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1)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7%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10월 들어 약화

- O 대표적 내수지표인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7년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증가율은 8~9월에 모두 10%를 웃돌았지만, 10월 들어 백화점 판매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7%로 둔화(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6.8%)
- 부문별로 보면, 10월 중 백화점 판매액 증가율이 -12.0%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형마트 판매액은 13.0%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하였지만, 10월에 -12.0%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도 -6.2%로 부진
- 대형마트 판매액은 2017년 6월부터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도 17.2%를 기록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감률(경상금액)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sup>1)</sup>

<sup>1)</sup>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다.

#### 전체 「취업자 수」와 「청년층 취업자 수」는 모두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감소

- 2017년 10월 서울의 전체「취업자 수」는 513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515만 6천 명)
  보다 0.5% 감소
- 전체「취업자 수」는 2017년 2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10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
- o 2017년 10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88만 2천 명)보다 2.0% 줄어든 86만 4천 명 수준
-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7년 8월에 0.8% 증가하다가 2개월 연속 하락
-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을 보면, 전체 취업자 수는 0.2%로 소폭 증가했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1.5%로 부진해 청년층 취업의 어려움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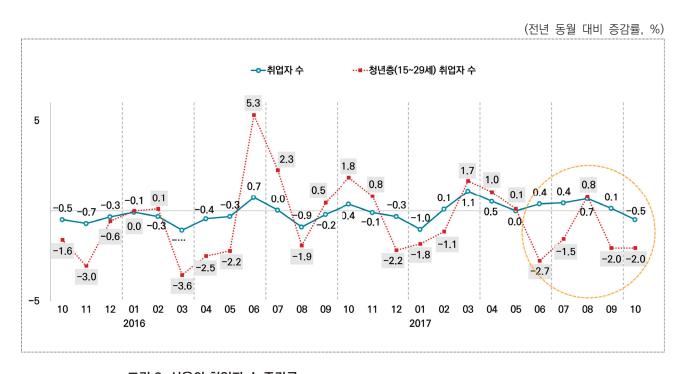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II.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3분기 연속 오름세 유지

####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

- o 2017년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sup>2)</sup> 기준 103.3으로 전 분기 대비 1.0p 상승해 3분기 연속 오름세 유지
- 「소비자태도지수」는 2013년 4/4분기(102.0) 이후 2017년 2/4분기에 처음 기준치
  (100)를 넘어선 이래 3분기 연속 100 이상을 기록
- ㅇ 그러나 2017년 2/4분기 이후 「소비자태도지수」의 개선 속도는 다소 정체된 모습
-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진정되고 있지만, 북한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중시하는 일자리 문제, 소득 개선 등 민생문제가 아직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sup>2)</sup>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연도별로 시계열 조사되는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한다.

#### 현재생활형편은 3분기 연속 상승했지만, 미래생활형편 기대감은 2분기 연속 하락

- o 4/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상승한 반면, 「미래생활형편지수」는 하락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2.1p 오른 88.2를 기록해 3분기 연속 상승한 반면,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0.4p 하락한 97.9를 기록
- 소득계층별로 보면,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
- ㅇ 1년 후 가구의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가계소득 불안'
- '가계소득 감소'가 35.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지출비용 증가 예정' 18.3%, '경기 불황' 18.2%, '물가 상승' 15.9% 등의 순
- 소득계층별로 보면, 연 가구소득 6,000만 원 미만에서 '가계소득 감소'가 많은 반면, 연 가구소득 6,000만 원 이상에서는 '지출 비용 증가 예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지출비용 증가 예정'과 '가계소득 감소'의 응답비율이 높고, 40대는 '경기불황', '지출비용 증가 예정', '가계소득 감소', '물가상승' 등의 응답률이 고른 데 비해 50대와 60대는 '가계소득 감소'를 주된 이유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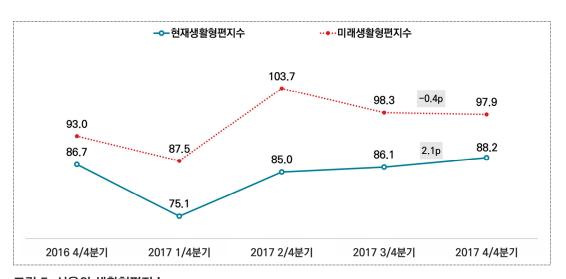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서북권과 동북권 등 일부 강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o 4/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서북권이 94.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그다음은 동북권(94.5), 동남권, 서남권(각각 92.7), 도심권(83.7) 등의 순
- 전반적으로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모든 권역에서 기준치(100) 이하로 낮은 편
- 서북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모두 90 이상을 보이고 있지만, 도심권이 80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 o 「현재생활형편지수」는 기준치 이하이지만 전 분기 대비 모든 권역에서 상승
- 특히 동작·관악·영등포 등의 서남권이 전 분기 83.5에서 92.7로 9.2p 상승하였고, 동대문·성동·중랑 등의 동북권도 전분기 86.4에서 94.5로 8.1p 상승
- 이밖에 도심권(종로·중구·용산 등) 4.8p, 동남권(서초·강남·송파 등) 4.5p, 서북권 (서대문·마포·은평 등) 3.4p 등 모든 권역에서 지수가 상승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생활형편지수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미래경기판단지수」가 더 부정적

- o 2017년 4/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4.0으로 전 분기 대비 0.2p 하락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17년 2/4분기부터 2분기 연속 급등하였지만, 4/4분기 들어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84 내외에서 정체
- 가구주 연령별로 본「현재경기판단지수」는 30대 이하와 40대가 각각 89.9, 87.0인데 견줘 50대와 60대는 각각 79.3, 79.6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경기에 더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
- o 2017년 4/4분기「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2.4p 하락한 94.0을 기록
- 「미래경기판단지수」는 2/4분기에 110.1로 기준치(100)를 웃돈 이후 2분기 연속 하락했지만 90대 중반 수준을 유지
- 가구주 연령별로 본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며, 특히 60대의 지수 수준은 89.7로 유일하게 90 이하를 기록
- 연 가구소득별로 본「미래경기판단지수」는 소득수준이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연 가구소득 2,400만 원 미만 계층은 89.4로 유일하게 90 이하를 기록



그림 7.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물가 상승, 소비지출 감소, 부동산 경기 부진 등

- o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주로 '물가 상승', '소비지출 감소', '부동산 경기 부진' 등
- '물가 상승'이 29.1%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소비지출 감소'(17.8%), '부동산 경기 부진'(16.6%), '막연한 불안감'(14.2%) 등의 순으로 조사
-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물가 상승'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은 40대 이하 '소비지출 감소', 50대 '부동산 경기 부진', 60대 '막연한 불안감'으로 조사
- 그러나 전 분기에 견줘 '물가 상승' 등의 응답비율이 낮아진 반면, '투자심리 악화'등의 응답비율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조사
- '물가 상승' 응답비율이 전 분기보다 8.8p 축소되고, '투자심리 악화' 응답비율은 3.7p 상승
- 이는 장바구니 물가인 서울지역의 생활물가 상승률이 3/4분기에 3.6%로 높았지만, 10~11월 중 전년 동기 대비 1.4%로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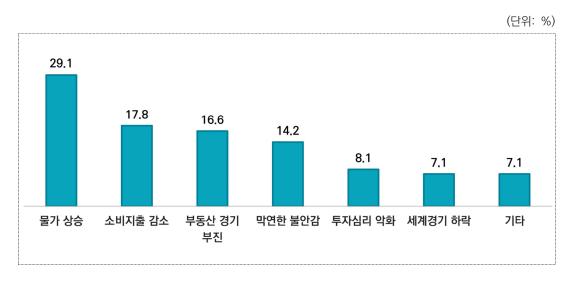


그림 8.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는 기준치를 웃돌았지만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

- o 2017년 4/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2.0으로 전 분기 대비 2.9p 하락
- 「현재소비지출지수」는 3/4분기에 114.9로 2014년 1/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했지만 4/4분기에 112.0으로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
- 가구주 연령별로 본「현재소비지출지수」는 40대만 전 분기 대비 1.4p 상승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전 분기보다 하락
- 연 가구소득별로 보면, 「현재소비지출지수」는 3,600만~4,800만 원, 6,000만원 이상 소득계층에서 전 분기 대비 증가했지만, 나머지 소득계층에서는 하락
- o 2017년 4/4분기「미래소비지출지수」도 101.0으로 전 분기보다 0.7p 하락
- 최근 3분기 연속 상승하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4/4분기에 기준치(100)를 웃돌았지만,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만 전 분기 대비 상승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하락
- 연 가구소득별로 보면, 6,000만 원 이상 소득계층에서 전 분기보다 상승하였지만, 나머지 소득계층에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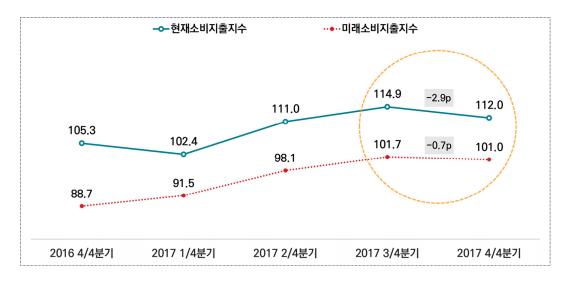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의류비'와 '교육비'만 상승하고 나머지 품목은 하락

- o 2017년 4/4분기 '의류비'와 '교육비'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각각 전 분기 대비 3.7p, 0.3p 상승
- 4/4분기 '의류비' 지수는 전 분기보다 3.7p 상승한 91.7로 2014년 1/4분기(91.7) 이후 처음으로 90대를 기록
- 4/4분기 '교육비' 지수는 전 분기에 비해 0.3p 상승한 112.6으로 조사 대상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 o 2017년 4/4분기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통신비'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두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지만 전 분기보다 하락
- 4/4분기 '식료품비' 지수는 100.7로 전 분기 대비 4.7p 하락하였는데, 조사 대상 품목 중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4/4분기 '주거비' 지수는 104.2로 전 분기 대비 0.2p 소폭 하락
- 4/4분기 '교통·통신비' 지수는 전 분기보다 1.5p 하락한 101.7을 기록
- o 이에 비해 2017년 4/4분기 '문화·오락비'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기준치(100)를 밑돌뿐 아니라 전 분기보다 하락
- 4/4분기 '문화·오락비' 지수는 전 분기 대비 1.7p 하락한 95.0을 기록
- '문화·오락비' 지수는 2017년 2/4분기부터 3분기 연속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



그림 10.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 서울시민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의사는 모두 전 분기보다 상승했지만 다소 유보적

- o 2017년 4/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2.7p 상승한 94.4
-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아직 기준치(100) 이하이지만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2014년 4/4분기(94.9) 이후 최고치를 기록
-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와 50대에서 각각 전 분기 대비 9.7p, 3.5p 상승하였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
- o 2017년 4/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70.8로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지만 전 분기보다 3.3p 상승
- 가구주 연령별로 본「주택 구입태도지수」는 40대에서만 2.3p 하락하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모두 상승
- 최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도 전월 대비 기준으로 9월 이후 오름세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9월 0.07% → 10월 0.23% → 11월 0.36%)
-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과 후속 대책 가능성, 최근의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주택 구입태도는 더 지켜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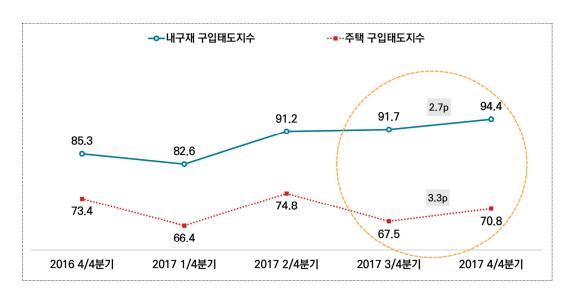


그림 11.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의사는 서북권, 동북권 등 일부 강북지역에서 큰 폭으로 상승

- o 2017년 4/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등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
- 서북권과 동북권은 각각 전 분기 대비 15.4p, 6.3p 상승한 77.3, 73.3을 기록
- 서남권도 전 분기보다 1.3p 상승한 70.8을 기록
- o 반면 도심권과 동남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하락
- 도심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62.5로 전 분기 대비 15.9p나 하락
- 동남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1.1p 하락한 65.3을 기록
- o 종합적으로 볼 때, 소비자들의 주택 구입의사는 일부 권역을 중심으로 전 분기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아 주택 구입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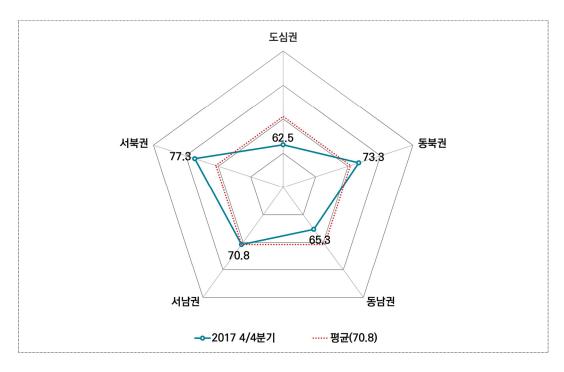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 「순자산지수」와 「물가예상지수」는 소폭 상승한 반면, 「고용상황전망지수」는 하락

- o 2017년 4/4분기「고용상황전망지수」는 90.1로 전 분기 대비 4.9p 하락
- 가구주 연령별로 본「고용상황전망지수」는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에 비해 하락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4분기에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해 기준치 100을 상회한 이후 2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
- o 2017년 4/4분기 「순자산지수」는 전 분기보다 0.7p 상승한 99.4
- 가계의 순자산이 증가한 이유는 '금융자산 증가'가 34.1%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부동산 증가'(27.8%), '소득 증가'(23.0%), '부채 감소'(15.2%) 등의 순으로 조사
- o 2017년 4/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137.1로 전 분기 대비 2.6p 상승
- 그러나 「물가예상지수」는 2017년 1/4분기에 146.5로 2013년 1/4분기(147.1)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2017년 2/4분기부터는 130대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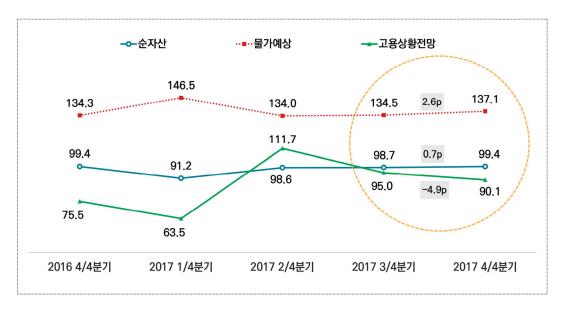


그림 13.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 10가구 중 약 6가구가 가계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 분기보다 다소 감소

- 2017년 4/4분기에 가계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 대상 가구의 62.4%로 전 분기보다 4.2%p 감소
-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가 69.4%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30대 이하 65.3%, 50대 64.4%, 60대 45.0% 등의 순으로 조사
- 가계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비율은 17.9%로 전 분기 대비 2.1%p 감소한 것으로 조사
- 이 가계 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주택관련 자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보면, '주택관련 자금'이 55.3%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생활자금'(17.7%), '사업 자금'(16.4%), '재테크'(3.5%), '자녀 교육비 및 학자금'(3.1%) 등의 순으로 조사
- 1~3순위 기준으로 보면, '주택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각각 60.6%와 52.0%로 가장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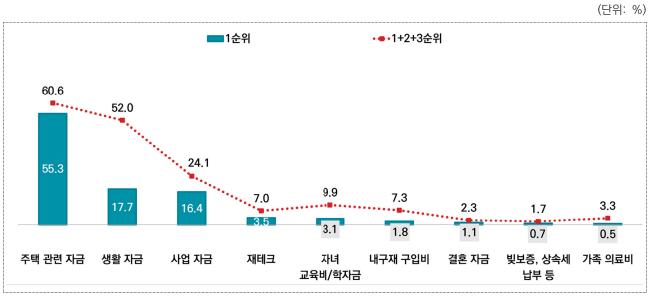


그림 14. 가계 부채의 주 사용용도

###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2018년 주요 경제 이슈

### 서울시민의 2018년 경제 이슈 1위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내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위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 이 내년 경제 이슈로 1순위 및 1~3순위 합계의 응답 결과를 보면, 모두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가 20.9%로 가장 높게 조사
- 그다음은 '생활 관련 물가상승'(15.3%), '부동산 경기'(13.1%), '최저임금 인상'(9.6%), '가계부채 증가'(7.0%), '전월세 가격'(5.2%) 등의 순으로 조사
- 1~3순위 합계 결과도 46.4%가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를 지목하였고, 그다음은 '생활 관련 물가상승'(32.6%), '부동산 경기'(31.2%), '최저임금 인상'(25.8%), '가계부채 증가'(24.7%), '저출산/고령화 문제'(20.0%) 등의 순으로 응답

(단위: %) ■1순위 ·····1+2+3순위 46.4 32.6 31.2 25.8 24.7 20.9 20.0 16.3 14.9 14.3 13.1 12.5 12.2 9.6 7.5 7.0 4.9 5.2 4.5 4.1 3.9 3.7 3.6 2.7 2.9 0.5 8.0 청년실업 생활 부동산 최저 저출산/ 국내 중국과의 자녀 4차산업 에너지 기타 평창 지방 소득 세금 관련 경기 임금 부채 가격 동계 고령화 금리 관계 양극화 인상 사교육비 혁명 정책 선거 소득 고용 물가상승 인상 증가 올림픽 문제 인상 개선 증가 대응

그림 15. 2018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 서울시민은 대다수 경제 이슈가 내년에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인식

- ㅇ 각 경제 이슈가 내년에 올해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다수 시민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12개의 경제 이슈 중 기준치(100)를 웃도는 이슈는 '중국과의 관계',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 정책', '신성장동력 발굴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총 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9개 이슈는 기준치를 밑돌아
- ㅇ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경제 이슈는 '중국과의 관계'이고, 가장 개선이 안 될 것으로 보는 경제 이슈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조사
-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본 응답비율은 66.3%로 가장 높고, 개선 전망의 점수도 200점 만점에 129.6점3)을 차지

■그대로 ■ 개선될 것 ■ 개선되지 않을 것 12.7 27.4 26.1 41.9 21.0 47.9 51.0 50.7 51.7 55.3 58.5 70.5 72.7 34.2 37.9 21.8 45.0 66.3 30.7 32.6 32,3 28.3 34.8 19.4 38.4 35.9 18.9 30.3 18.3 16.7 15.9 10.1 9.9 8.4 전월세 가격 생활물가 저출산 중국과의 에너지 4차산업 청년실업 부동산 가계부채 가계소득 소득 자녀 관계 정책 혁명 및 고용 경기 양극화 사교육비 및 대응 고령화

(단위: %)

그림 16. 경제 이슈별 개선 전망

주: 서울지역 표본 1,013가구 대상 설문조사

<sup>3)</sup> 올해 대비 내년 경제 이슈 개선 전망은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 0점,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 50점, '그대로이다' 100점, '약간 개선될 것' 150점, '매우 개선될 것' 200점을 부여하여 환산하였다.

- 그다음은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 정책'(개선 응답비율 38.4%, 104.0점), '신성장 동력 발굴 등 4차 산업혁명 대응'(개선 응답비율 35.9%, 103.7점), '청년실업 및 고용'(개선 응답비율 30.3%, 87.9점), '부동산 경기'(개선 응답비율 18.3%, 80.0점) 등의 순
- 특히 시민들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개선 응답비율 8.4%, 52.3점), '소득 양극화'
  (개선 응답비율 10.1%, 53.8점), '자녀 사교육비'(개선 응답비율 9.9%, 71.1점) 등
  의 경제 이슈는 개선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전망

### 부록: 2017년 4/4분기 주요 조사결과

- o 이 연구는 서울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한국은행은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
- 한국은행의 '2017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2.3으로 전월 대비 3.1p 상승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윤미지 태도*	현재	미래	현재	미래	내구재	주택
	914	생활형편	생활형편	경기판단	경기판단	구입태도	구입태도
2016년 4/4분기	91.1	86.7	93.0	63.4	69.7	85.3	73.4
2017년 1/4분기	83.2	75.1	87.5	40.7	68.7	82.6	66.4
2017년 2/4분기	102.1	85.0	103.7	63.1	110.1	91.2	74.8
2017년 3/4분기	102.3	86.1	98.3	84.2	96.4	91.7	67.5
2017년 4/4분기	103.3	88.2	97.9	84.0	94.0	94.4	70.8

주: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	지출	<b>人TL</b> ル	그어사하다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2016년 4/4분기	105.3	88.7	99.4	75.5	134.3
2017년 1/4분기	102.4	91.5	91.2	63.5	146.5
2017년 2/4분기	111.0	98.1	98.6	111.7	134.0
2017년 3/4분기	114.9	101.7	98.7	95.0	134.5
2017년 4/4분기	112.0	101.0	99.4	90.1	137.1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013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p임(2017년 4/4분기 조사 시점은 2017년 11월 7일~11월 20일)

####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 발행인 : 서왕진 편집인 : 정희윤 발행처 : 서울연구원

> >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